

유치원 회계사고, 20개 시나리오 통해 예방 '방점'

교육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공개

3월1일부터 686곳에 정식 도입 예산편성 등 회계 필수기능 5개 클린재정 등 부가기능 3개 개선 유은혜 "투명한 회계 관리 기대"

올해 3월부터 686개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도입된다. 유치원의 수입과 지출 이력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회계 사고가 의심되는 사용패턴을 확인할 수 있어 유치원 회계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3월 1일부터 원아 수 200명 이상 유치원 581곳과 105개 희망 유치원 등 686개 유치원에 도입되는 새로운 버전의 에듀파인을 18일 공개했다. 사립유치원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해 19일부터 예산 편성기능이 우선 개통되고, 수입·지출 기능은 3월 1일, 결산 등 기능은 4월 단계적으로 개통될 예정이다.

에듀파인 도입은 교육부가 작년 10월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의 중점 추진 과제로, 사립유치원 회계규정인 '사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이지는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장이 오는 3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 등에 적용될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말뉴스

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예산 편성·집행이 가능하도록 기능이 개선됐다. 기능 개선에는 시도교육청 추천을 받은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현장자문단으로 참여했다.

새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 회계 특성과 회계 현실을 반영해 ▲사업현황 ▲예산편성 ▲수입관리 ▲지출 ▲결산 등 5개 회계 필수 기능과 사립유치원 편의를 지원하는 ▲클린재정 ▲세무관리 ▲재정분석 등 3

가지 부가기능 등 8개 기능이 개선됐다.

재정분석의 경우 유치원 회계의 세입예산 대비 수납실적, 예산 항목별 세출 실적, 반환금 실적 등 유치원 재정현황을 분석해 일목요연하게 출력 가능한 기능으로 회계 효율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립유치원이 받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수익자부담금 등 재원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할 수 있다. 유치원 재원에 따른 집행현황 관

리가 가능하다.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감사 결과 절발된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원복비 등 수익자 부담경비를 국고지원금인 누리과정 교육비와 수익자부담경비에서 혼용 집행하는게 어려워진다.

또 원아별 미납액이나 과오납액 등 수입 징수내용을 관리할 수 있고, 에듀파인에 등록된 거래업체에만 지출이 가능하고 그 내역이 시스템에 저장되므로 부정지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방과후 교사 인건비나 각종 물품 구입비를 설립자 겸 원장에게 지급하는게 불가능하다.

특히 회계업무 절차상 오류 등 사립유치원에서 가능한 회계 사고 유형 20여가지를 시나리오로 제공하는 '클린재정' 기능도 추가됐다. 회계사고로 의심되는 사용패턴을 월단위로 분석 확인할 수 있어 회계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클린재정 목록에 부적정으로 추출되는 경우는 수입이 과오납의 경우, 수납과 반환 계좌가 상이한 경우, 지출 시 상이한 거래처나 동일 예금주인 경우, 지출결의서와 원행위의 예금주가 다른 경우 등으로 유치원 사용자는 이에 대해 소명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대표강사 134명을 구성하고, 시도교육청 단위로 446명의 전문 상담 지원단을 꾸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에 대한 상시 지원체제도 마련했다. 회계업무 지원 상담과 국공립유치원과 인근 사립유치원 회계업무 담당자의 1대1 연결 등이 가능하다. 또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통합상담센터에 사립유치원 전문 상담사 15명을 배치해 전화상담센터(1544-0079)도 19일부터 운영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초석인 만큼 정부가 책임있게 운영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어긋남 없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현장에 잘 정착 되도록 회계지원과 교육 등 서비스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립유치원 최대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에듀파인의 의무사용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고 오는 25일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반면 한유총에서 일부 원장들이 탈퇴해 만든 800명 규모의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의 경우 에듀파인 수용에 보다 적극적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기업 30% "핵심인재, 특별 관리 한다"

사람인, 기업 344곳 설문 51% '개인 성과급'으로 관리

기업 10곳 중 3곳은 회사 내 핵심인재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사람이인 기업 344곳을 대상으로 '핵심인재 관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30.8%가 '별도로 관리하는 핵심인재가 있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다만 3년 전인 지난 2016년 조사보다 약 7%포인트가 낮아졌다.

기업 형태별로는 중견기업(41.3%), 대기업(31.3%), 중소기업(29.1%) 순으로 핵심인재를 별도 관리하는 비율이 높았다.

핵심인재를 관리하는 방법(복수응답)으로는 '성과에 따른 개인 인센티브'(50.9%)가 가장 많았고, 이어 '높은 연봉'(27.4%), '넓은 업무관련 부여'(23.6%), '고속 승진'

(22.6%), '인사고과가산점'(15.1%), '자기개발 등 교육지원'(15.1%), '추가 복리후생'(10.4%) 등이었다.

이 가운데 핵심인재에게 높은 연봉을 준다는 기업(29개사)의 경우, 핵심인재에게 동일 직급이나 연차 대비 평균 약 28.1%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답했다.

핵심인재의 직급은 '과장급'(37.7%)이 가장 많았고, '대리급'(26.4%), '부장급'(20.8%), '사원급'(8.5%), '임원급'(6.6%) 순으로, 실무와 중간관리를 담당하는 대리·과장급이 과반 이상인 64.1%를 차지했다.

기업들은 핵심인재가 퇴사 의향을 밝힐 경우, '연봉인상 제시'(50%, 복수응답), '승진, 승급 제안'(26.4%), '추가 인센티브 약속'(25.5%), '직책자 임명 및 업무관련 부여'(19.8%) 등의 조건을 걸며 퇴사를 막는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인천대, 말레이시아 대학과 공동연구 맞손

쿠알라룸푸르 말라야 대학에 '매개체감염병 국제협력연구소' 개설

인천대학교는 생명과학기술대학 매개곤충자원융복합연구센터(센터장 권형욱)가 최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말라야 대학 열대감염병연구교육센터를 방문해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현지에 매개체감사와 매개체감염병 연구를 위한 국제협력연구소를 개설했다고 18일 밝혔다.

매개체감염병은 말라리아,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SFTS 등으로, 말라야대학 열대감염병연구교육센터는 세계보건기구(WHO)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 지원을 받아 관련 교육·연구를 수행하는 핵심적 연구소다.

이번 협약과 국제협력연구소 개설을 통해 양 기관은 각 지역에 존재하는 매개



인천대학교 생명과학기술대학 매개곤충자원융복합연구센터가 최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말라야대학 열대감염병연구교육센터와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현지에 국제협력연구소를 개설했다. /인천대

체에 대한 유전체 비교분석이나 질병매개력과 관계 연구, 데이터베이스 제작 등에서 상호협력 관계를 만들기로 했다.

인천대 매개곤충자원융복합연구센터는 2017년 초 설립됐으며, 특히 우리나라

의 관문인 인천지역과 휴전선 부근 매개체 감시와 감염병 연구 선진화에 나서고 있다. 끝별연구의 종보전 및 선진화 연구 등 다양한 학문분야 교수진이 참여해 특성화된 연구도 진행 중이다. /한용수 기자

김정식 대덕전자 회장

모교 서울대에 500억원 '통 큰 기부'

대덕전자 회장 겸 해동과학문화재단 이사장인 해동 김정식(90) 회장이 모교 서울대에 500억 원의 기부금을 쾌척했다.

서울대는 18일 오전 행정관 소회의실에서 오세정 총장과 김 회장이 참석해 기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지난 30년 가까이 장학금과 교육 시설을 꾸준히 기부해왔다"며 "해외 유수한 교육기관들이 AI 등 새로운 미래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서울대가 이번 기부금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활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서울대 공과대학의 융·복합 교육과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해동첨단공학기술원(가칭)' 건립과 운영에 사용된다. 해동첨단공학기술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플랫폼으로 로봇, 반도체, 에너지,



김정식 대덕전자 회장 겸 해동과학문화재단 이사장(오른쪽)이 오세정 서울대 총장과 18일 500억원 기탁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서울대

바이오 등 공학 전 분야의 조적차 융합을 추구하는 신개념 연구교육 공간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오세정 총장은 "회장님의 귀한 뜻을 받들어 기금을 우리나라 경쟁력 강화에 헌신할 수 있는 우수한 공학 인재 양성에 소중하게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한용수 기자

NE능률 아이챌린지

베페 베이비페어 참가

만3~6세 창의융합프로그램 공개

NE능률은 영유아교육 브랜드 아이챌린지가 21일~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35회 베페 베이비페어에 참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19일 론칭하는 만3~6세 창의융합프로그램을 첫 공개하고 현장에서 구독하면 호비자석놀이를 추가로 증정한다. 또 지난해 출시한 국내 첫 월령프로그램을 비롯해 단계프로그램, ABC 버블스까지 전 라인업의 상담과 판매에 나선다.

특히 전시회 현장에서 프로그램 구독 신청시 10% 할인과 '봄맞이 우리아이 케어 세트' 등의 사은품도 제공한다. 매일 구독자 선착순 50명에게는 호비 마스크 모자를 추가 증정한다. 이밖에 사은품을 제공하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한용수 기자

한성대, 학·석·박사 1092명 배출

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는 20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교내 낙산관 대강당에서 2018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하고 학사 864명, 석사 193명, 박사 35명 등 총 1092명에게 학위를 수여한다고 18일 밝혔다.

학부 졸업식은 이날 오전 11시, 대학원 졸업식은 오후 2시 진행된다. 행사에는 한성학원 이종훈 이사장, 한성대 이상한 총장과 보직 교수,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총동문회장 등 한성대 관계자와 학위 취득자와 학부모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학위 수여식에서는 우촌상, 이사장상, 총장상, 총동문회장상, 기업은행장상, 우리은행장상 등 학부생 106명에게 상이 수여되고, 최우수논문상, 우수논문상, 성적우수상, 특별공로상, 공로상, 총동문회장상 등 대학원 졸업생 62명에게 상이 주어진다.



한성대 2018학년도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위로 던지며 환호하고 있다. /한성대

이상한 총장은 "어느 곳, 어느 분야에 가도 자신을 믿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으니 졸업생이 발전된 역량으로 개인과 사회 발전에 충분히 기여하길 바란다"며 "한성대 교육이 넘은 진리와 지식을 기억하고 몸은 떠나도 한성대가 진리의 상아탑으로서 졸업생의 마음의 고향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용수 기자